

廣州李氏會報



<p>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p>	<p>讀書可以 悅親心 독서가이 열친심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p> <p>勉爾孜孜 惜寸陰 면이자자 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p> <p>老矣無能 徒自悔 노의무능 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p> <p>頭邊歲月 苦駸駸 두변세월 고택침침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p>	<p>遺子滿籝金 유자만영금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p> <p>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p> <p>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p> <p>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p>
----------------------------	--	---

제28회 “둔촌청소년문학상” 시상식 개최



제28회 둔촌청소년문학상(백일장)공모전 시상식이 2023년 6월10일 오전 11시 성남시 증원구 하대원동 소재 둔촌재실 추모재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종회 주영 회장을 비롯 상임이사, 각 지파종회 회장과 집행부, 경기문인협회 이예지 회장을 비롯한 작가 등 관계자, 61명의 수상자와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의 자리를 함께하였다.

둔촌청소년 문학상은 옛 광주군을 본향(本鄉)으로 하는 광주이씨 1대조이며 문장가, 성리학자이신 둔촌 이집선생(1327~1387)의 효행과 충절

심을 기리고자 1996년 제정하여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문학적 소양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모전으로,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가 주최하고 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가 주관하고 있다.

올해 28회를 맞은 둔촌 청소년 백일장은 ① 둔촌선생의 충절과 효행심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② 청소년들의 문학적 소질을 발굴육성하며, ③ 애향심과 도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④ 향토문학 및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금년도 공모전은 2023년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모하여, 총 1121명(초등 507, 중등 421, 고등 193)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공모에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의 영광을 갖게 된 시상자는 모두 61명이다. 주최측은 입상작품집 200쪽 500부를 발간하여, 각 기관 및 종인에게 배포하였다.



[축사]

전통과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안녕하십니까. 광주이씨 대종회 회장 이주영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푸르름 속에, 제 28회째를 맞이하는 둔촌 청소년문학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 행사가 있기까지

수고해주시는,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 이예지 회장님과 심사위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수상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수상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그동안 문학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지 못하고, 제한된 분위기 속에 시상식을 거행하였으나, 이제 재난의 상황이 종식되어, 우리 모두의 삶이 평상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둔촌 청소년문학상은 기대와 많은 참여 속에, 작품의 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날로 기다리는 문학상으로 성장하여, 금년에도 많은 청소년 문학도들이 참가하였고, 그중에서 훌륭한 심사위원님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되어, 작품집으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 문학상은 둔촌선생의 효행과 충절심을 기리기 위해, 청소년들의 문학적 소양을 발굴육성 하고, 향토문학 및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모전입니다.

앞으로도 둔촌 청소년문학상 공모전을 통해, 이 자리가 숭고하신 둔촌 이집 선생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자리가 되고, 문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문학 역량을 발굴하는, 전통과 권위가 있는 문학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수상자 여러분 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廣州이씨대종회 회장 주영 -

[입상작을 펴내며]



둔촌선생의 얼

별써 스물여덟 번째 “둔촌청소년문학상”이 시행되었다.

매년 갖는 행사지만

행사 때마다 작품을 보면 청소년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둔촌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단순한 작품을 위해서가 아니라 둔촌선생 일대기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찰하며 둔촌선생의 얼을 배우고 익히려 한다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대회를 펼친다는 자체가 앞으로 미래를 끌고 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

관을 심어준다는 점과 훌륭한 선인 둔촌선생의 그 충효정신과 그리고 고매한 학문과 인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끝으로 이 행사를 위해 지원해주시는 광주이씨 대종회와 학생들의 응모를 도와주신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참가한 청소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리며 발간사를 접는다.

- 경기도문인협회 회장 이예지-

[심사평]

효(孝)의 뿌리를 찾아서

금년 둔촌청소년문학상의 응모작이 예년에 비해 다소 적었다. 이런 형상은 본 문학상의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기인 된 것 같다. 입상작이 단행본 책자로 발간되어 각 학교로 배포되기에 본 문학상 입상수준에 대해 알려졌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 같기도 하다.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응모된 작품들이라 심사에 임하면서도 신중을 기해야 했다. 응모된 작품들의 주제를 크게 나누어 보면 둔촌 할아버지에 관한 것과 그것이 아닌 자유 주제로 대별할 수 있었다. 우선 둔촌할아버지의 행적에 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어 쉽게 쓸 수 있으나 청소년들의 감성 속에 어떻게 둔촌할아버지가 자리하고 있느냐를 보았고, 자유 주제의 것은 문학적인 소양을 중심으로 보았다.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입상자를 선했다.

우선 고등부 최우수는 최희주(능동고 2)의 <진짜 뿌리 깊은 나무를 보았다>은 둔촌의 행적에 따른 훌륭한 점을 본받으려 했고, 이를 통해 둔촌이 있음으로 그 후손들까지 훌륭하게 되었다는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다가왔으며 전체적인 글의 짜임이 좋은 수필이었다.

그리고 대상에는 송지우(운중고 2)의 <달은 풀>은 상황이 같은 곳에서 착안해 그 비교 점에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섬세한 청소년의 심리를 잘 그려준 글이었다. 또한 장원에는 박

준혁(서현고 1)의 <젊은이들, 부탁이네>는 둔촌 일대기를 요약한 것 같았다. 다만 최원도의 입장이 되어 독자를 끌고 가는 흡입력이 있었다. 신지은(태원고 2)의 <시간여행>은 장황한 이야기의 설정이 수필적 구조에는 걸맞지 않았다. 하지만 장원에 머문 두 사람은 작품을 위한 노력과 정진을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겠다는 저력이 인정되었다.

그 외 차상, 차하, 장려에 머문 작품들도 버금가는 글이었으나 약간의 미흡함이 드러나 다음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다음 중등부에서는 김연재(보라중 3)의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해 주시는 둔촌선생님>을 최우수로 선했다. 둔촌선생의 행적과 일화를 통해 역사 속 이야기와 비교분석하고 아울러 자신을 성찰하며 둔촌선생의 훌륭한 점을 배우고 싶다는 중학생으로서의 성숙된 의식을 보인 좋은 글이었다. 그리고 대상에는 유시윤(향남중 1)의 <둔촌선생님처럼 살고 싶다>는 앞서 언급된 최우수작품과 대등소이한 주제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둔촌의 행적과 현 사회를 대칭해서 쓴 점이 다르고 둔촌선생을 닮고 싶다는 각오가 대단했다. 장원에는 김수아(홍천중 3)의 <둔촌이 집선생의 효행을 본받고저 이 글을 씁니다>와 김준범(내정중 3)의 <신발>을 선했다. 전자는 둔촌의 효행을 보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해 효녀가 되겠다는 감수성이 높은 글이었고,

후자 <신발>은 잃어버린 신발을 통해 자신의 주의력이 없는 것을 타하는 성찰에 대한 글이었으며, 두 작품 모두 재미있었다. 그 외 차상, 차하, 장려의 작품들도 조금만 정진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었다.

끝으로 초등부 최우수는 김하늘(산의초 6)의 <모범적인 삶을 사신 둔촌선생님>으로 둔촌선생의 학문에 대한 정혼을 필두로 둔촌선생에 대한 연구하듯이 조목조목 열거해가며 나라사랑, 효도, 우정, 의리에 대해 소견을 적었다. 그러나 수필에서 이런 첫째 둘째하며 쓰는 것은 논술이 아니라 피해야 함에도 뽑은 것은 초등학교로서 의식이 뚜렷해서였다.

대상에는 이지아(서현초 4)의 <5만원으로 얻은 깨달음>인데 어린시절 한번쯤 저지르는 실수를 통해 자기반성을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반성의 의미가 진실성을 더했고, 재미나게 쓴 글이었다. 장원에 류정화(초림초 6)의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건넌다>는 초등학교들 간에 있는 다툼을 잘 표현했고, 이에 따른 심리와 행동모사가 돋보였다. 초등부 또한 그 외 차상, 차하, 장려에 머문 모든 작품들이 고만고만한 미흡함이 있었다. 더욱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좋은 글을 쓰리라 믿는다.

-심사위원회-

제28회 둔촌청소년문학상 입상자명단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등위	학교,학년	성명	훈격	등위	학교,학년	성명	훈격	등위	학교,학년	성명	훈격
최우수	산의초 6	김하늘	도지사상	최우수	보라중 3	김연재	도지사상	최우수	능동고 2	최희주	도지사상
대상	서현초 4	이지아	경기에총회장상	대상	향남중 1	유시윤	경기에총회장상	대상	운중고 2	송지우	경기에총회장상
장원	초림초 6	류화정	대종회 회장상	장원 1	홍천중 3	김수아	대종회 회장상	장원 1	태원고 2	신지은	대종회 회장상
차상 1	해든초 4	김재인	경기문협회장상	장원 2	내정중 3	김준범	대종회 회장상	장원 2	서현고 1	박준혁	대종회 회장상
차상 2	중앙초 4	조유건	경기문협회장상	차상 1	송림중 3	윤다현	경기문협회장상	차상 1	양서고 1	최이랑	경기문협회장상
차상 3	영일초 6	정채음	경기문협회장상	차상 2	도촌중 1	전진호	경기문협회장상	차상 2	성일고 2	정성우재	경기문협회장상
차상 4	별원초 6	정연우	경기문협회장상	차상 3	서현중 2	이서현	경기문협회장상	차상 3	대지고 2	김남수	경기문협회장상
차상 5	서당초 5	이승주	경기문협회장상	차상 4	셋별중 3	하승우	경기문협회장상	차상 4	관인고 1	최호영	경기문협회장상

차하 1	상대원초 6	이다원	경기문협회장상	차상 5	곡선중 2	이아람	경기문협회장상	차상 5	마석고 1	박순호	경기문협회장상
차하 2	안말초 5	이하을	경기문협회장상	차하 1	현화중 1	김주아	경기문협회장상	차하 1	성보경영고 2	원은을	경기문협회장상
차하 3	성남초 5	이지안	경기문협회장상	차하 2	청덕중 3	이서준	경기문협회장상	차하 2	효양고 3	한경진	경기문협회장상
차하 4	돌마초 6	정하윤	경기문협회장상	차하 3	풍생중 1	김은찬	경기문협회장상	차하 3	군서고 1	이하린	경기문협회장상
차하 5	현일초 6	정상빈	경기문협회장상	차하 4	여강중	윤희승	경기문협회장상	차하 4	흥덕고 1	조예준	경기문협회장상
장려 1	성수초 6	김윤재	성남문협회장상	차하 5	성남중 3	이나영	경기문협회장상	차하 5	청심국제고 1	김예준	경기문협회장상
장려 2	장당초 4	최지우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1	계원예술중 1	이연주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1	용문고 1	허진무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3	조현초 6	전라겸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2	양수중 2	조예린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2	이현고 2	문설아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4	분당초 4	노은겸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3	동광중 3	김채령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3	성남고 3	윤대영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5	단남초 5	윤채아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4	안일중 1	김하은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4	동백고 3	박준혜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6	중탑초 4	장윤서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5	함현중 3	김지은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5	영신여자고 1	채이안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7	장내초 6	윤슬희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6	배곧중 2	안다운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6	와부고 1	박수빈	성남문협회장상
								장려 7	이매고 1	이성은	성남문협회장상

장학생선발을 위한 장학위원회 개최

대중회는 2023. 6. 26(월) 11시 대중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특별장학생 심의를 위한 장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대중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지파 회장들과 대중회 집행임원 4명 등 14명으로 구성된 장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속개된 회의에서, 집행부

가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심의하였다. 심의 대상자 39명중 3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1명에 대하여는 자료의 부족으로 추후 2학기 등록을 필하였을 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하였다. 장학생에 선발된 특별장학생은 아래 표와 같다.



특별장학생 선정자 명단 총인원: 38명(중2, 고11, 대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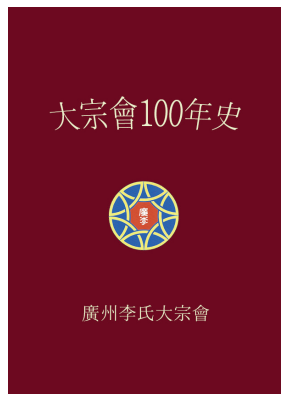
지 파	성명	학 적	장 학 사유	지 파	성명	학 적	장 학 사유
사인공	종범	고려대 1년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의병 재대 후 아르바이트하면서 틈틈이 공부, 금년도 대학 진학한 의지의 청년	"	종현	시흥고 1년	조부모님과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며 송조사상이 투철하여 성묘 및 별초 등을 실천하는 품행이 방정한 모범 학생.
"	민우	이서고 2년	학업성적 우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며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범적인 학생	"	화수	청량고 3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평소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타의 모범적인 학생.
광릉부원군	시윤	명일여고 1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지향적 꿈이 있어 열심히 공부하는 근면 성실한 타의 모범적인 학생	좌의정	다은	송실대 2년	지역사회의 봉사자로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며 노력,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 타의 모범이 됨.
"	예나	의정부여고 3년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적인 학생이며, 생명공학 분야에 뜻을 두고 학업에 매진	"	주환	수원 과학대 2년	충실히 학교생활을 하며 학업에 매진,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명문 후손의 명예와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
"	훈희	백석문화대 4년	간호에 대한 최고의 전문의를 꿈꾸며 소신 있게 간호학과에 진학하였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버는 능동적인 학생	"	한용	순천향대 4년	성실히 지역사회 봉사자로 살아가는 부모님 모습을 보며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여 학업성적 우수, 타의 모범이 됨.
"	용규	한국외대 2년	인간의 존엄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환경학과 진학,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학비를 벌며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	"	수빈	갈매고 3년	부모님이 지역사회의 봉사자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함.
"	서윤	동대부중 3년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조모님 봉양도 하는 마음씨 착하고 근면 성실한 타의 모범적인 학생임.	참판공	준혁	목포대 2년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됨.
문경공	호진	중앙대 1년	평소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 향후 장래가 촉망되어 공일을 빛낼 수 있는 인재임.	"	지훈	제주대 2년	학업에 충실하여 성적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수정	동아대 2년	모범적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양을 두루 갖춘 학생으로 타의 모범이 됨.	"	서원	금호중 1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학급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타의 모범적인 학생.
"	주영	한양대 4년	실내건축디자인과에 입학 자신의 꿈을 향해 연구 실습하며 열심히 생활하는 모범적인 학생.	좌통례	서현	부산대 6년	학업성적이 뛰어나 약학대학에 진학하여 전 학년에 걸쳐 학업성적이 우수, 타의 모범이 됨.
"	주영	이화여대 2년	미래 핵심 분야인 반도체·바이오 관련 전공,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자 자기 개발에 노력하는 미래가 촉망되는 인재임.	"	찬수	한국외대 1년	평소 외조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품행도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함.
"	태인	고려대 4년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학업에 매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 모범적인 학생으로 장래가 촉망됨.	"	지훈	영남대 4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적인 학생.
"	주빈	여주자영농고 1년	지역종친회 적극 참여 활동하는 종인 자녀로 농업을 하시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학업에도 충실한 모범 학생.	"	종주	동국대 1년	학업성적이 뛰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융합대학에 입학, 미래가 촉망되는 인재임.
"	규민	고창고 3학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어린 나이에 농업을 하시는 부모님을 돕는 등 효성이 지극하기에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다현	양목고 1년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학업 성취도가 높으며 교내 환경보호 활동에도 참여하는 모범적인 학생.
광천부원군	지혜	신안산대 3년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해결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비와 병환인 어머니 약값을 보태는 등 효성을 다하여 가정을 돌보는 효녀.	"	승후	순심고 1년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광원군	희연	한국폴리텍대 1년	학업에 대한 열정과 근면 성실한 자세로 학업 성취도가 높아 교우 사이에서도 모범이 됨.	문숙공	종민	신구대 2년	게임 분야에 관심과 재능이 있어 VR게임콘텐츠와 입학, 학비를 마련해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	서희	서울대 3년	집안 어른들에 대한 자긍심이 남다르며, 품행이 방정하고 학교성적도 우수하여 타의 모범적임.	"	슬기	경남정보대 2년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학업을 계속 이어 나가고자 학비 마련을 위해 여러 군데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학생.
"	지효	동아여고 2년	조부모님이 소중회 총회장을 역임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명문 후손답게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학생.	목사공	창민	상지대 4년	농촌 지역의 현실을 극복하며 학업에 매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 후 경영학도의 꿈을 키우며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
"	중훈	서울과기대 4년	종친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조부모님을 보며 학업에 매진,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도 우수한 모범 학생.	"	재윤	백석대 4년	종교인의 상담 역할의 꿈과 소신이 확신하여 학업에 충실, 훌륭한 종교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학생.

대중회 연혁집 “광주이씨 대중회 100년사” 발간

대중회는 연혁집 「광주이씨 대중회 100년사」의 편집을 완료하고, 7월 초 배부할 계획이다. 대중회 연혁집 발간사업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발간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으나, 문서의 정리, 자료의 부족 등으로 발간작업 중에 중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발간작업을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다시 발간작업을 시작하여, 4년 6개월의 긴 시간 끝에 드디어 출간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초 편집자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는 보지 않았으나, 30여 만장에 달하는 오래된 문서자료를 정리하고, 전자문서화를

병행하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총 768페이지로 편집된 연혁집은 ① 권두화보, ② 발간 및 축사, ③ 대중회 연원, ④ 연도별 소사, ⑤ 대중회조직 및 인명록, ⑥ 주요 업무추진, ⑦ 대중회 재산관리, ⑧ 유적지 보존관리, ⑨ 산하단체 활동, ⑩ 부록편(선대조 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중회 연혁집은 종인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출판된 만큼 부수는 500부로 출판하였으며, 무상배부와 대중회 비치분을 제외하고, 300부 한정으로 구매를 원하는 종인들에게, 인쇄비 수준의 5만원(정가 15만원)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종인들의 관

심이 많고 한정판매인 만큼, 빠른 시간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구입을 원하는 종인들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지파총회를 통해 구입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중회 총무담당(02-735-1720)에게 연락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중회 무료법률상담 시행 예정

대중회(회장 주영)에서는 종인들의 법적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무료법률상담을 계획하고 있다. 상담 변호사는 종인 중 무료 봉사 및 재능을 기부코자 하는 현직 변호사를 섭외하여 상담코자 한다. 상담분야는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기본대상

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추후 봉사코자 하는 변호사를 섭외하여 일정, 방법 등을 협의 후 공지할 예정이다. 종인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에 봉사하거나 도움을 주실 변호사의 많은 협조와 연락을 기다리며, 또한 각 지파에서는 종인 중에 변

호사를 찾아 연락 주시고, 섭외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 본 무료법률상담이 종인들의 생활법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총회공(諱 仁孫)총회

총회공총회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총회공 총회(회장 경래)에서는 2023년 5월 2일 여주 총회공 재실 마당에서, 2023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경래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 그리고 대의원이 성원을 이룬 가운데, 승재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회장인사, 회순 상정, 경과

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으로 2022년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결산(안) 그리고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하여 별 이견 없이 원안대로 승인을 얻었다. 기타 사항으로 5군의 만집 문수 총무가 총회공 선조님 발자취를 집필하여 편찬하겠다고 하였으며, 이 밖에도 총회공 선조님 묘소를 방문하는 내방객을 위해서, 선조님 행적 및 연호가 담긴 간행물까지 제작하여 바치겠다고 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기총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마당 뜰에 차려놓은 뷔페로 반주를 곁들이며 총회공 총회 및 5군 지파 총회 발전을 위해 담소

를 나누었고 이어서 경래 회장의 건배 제의로 다 같이 잔을 높이 들며 건승을 빌었다.
-총회공 총회 총무 승재 記-



광릉부원군(諱 克培)파총회

광릉부원군파총회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광릉부원군파 총회(회장 봉수)에서는 5월 12일 2023년도 대의원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봉수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 그리고 대의원이 성원을 이룬 가운데 문수 총무의 진행으로,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회장인사, 경



과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으로 2022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승인 및 2023년도 사업계획 안과 예산(안) 상정이 있었다. 봉수 회장은 인사에

서 아침 일찍 경향 각지에 참석하신 임원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모두가 총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총회 운영에 어려움 없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인사에 가름하였다. 이어서 부의 안건으로 2022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 안 그리고 2023년도 사업계획 안과 예산 (안) 상정이 별 이견 없이 원안대로 승인을 얻었다. 기타 토의 사항으로 2023년 종인 한마음 축제는 10월 달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대의원 정기총회를 모두 마쳤다.

광릉부원군파총회 화수회 소식

광릉부원군파 총회 화수회(회장 종길)에서는 2023년 5월 18일 광릉부원군 묘소 및 주변에 환경 미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날 종길 화수회장을 비롯해서 20여명의 화수 회원이 참석하였다. 오전 9시 30분 묘소에 집결한 회원들은 파조님 묘소와 주변에 풀을 뽑고 신도비 각을 청소하는 등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였다. 이후 자리를 식당(황금오리 집)으로 이동하여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송조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종길 회장은 인사에서 공사다망하심에도 참석하신 회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할아버님의 음덕을 많이 받으시라며, 건배를 제의하였다. 끝으로 5월 화수회는 종봉 총무의 6월 화수회 일정을 듣고 회의를 모두

마쳤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백래 前경기도 의원, 부제학공 종회 종훈 회장, 그리고 종경 현종, 종덕 현종께 감사드린다.



■ 광릉부원군파종회 산하 소종회 소식

광릉부원군파 광주 무갑리 종회(회장 주혁)청장년 회에서는 2023년 5월 7일 광릉부원군 파조님 묘소를 참배하였다. 이날 주혁 회장을 비롯해서 종록 총무 등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오전 11시 묘소에 도착한 회원들은 묘소에 잡초부터 제거하였다. 이후 묘전에 모여서 주혁 회장의

인사와 참석자 소개가 있었다. 곧이어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진설한 다음 문수 총무이사로부터 광릉부원군 파조님에 대한 행적과 연호, 그리고 직손이신 대사헌공(휘 세필) 선조님에 대한 행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파조님께 참배를 드린 후 자리를 이동하였다. 하남시 미사리 소재 횃집(상호 어시장)에 모인 회원들은 자리를 정리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 청장년 활성화에 대한 열띤 토론과 격의 없

는 대화를 나누며 청장년 회 발전을 모색하였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원을 보낸다.



■ 광릉부원군파종회 고유제 및 초청 연회 개최



광릉부원군파 종회에서는 2023년 5월 10일 대종회 용두 부회장이 호선에서 상임으로 선출된 것을 비롯해서 경기 광명 종회 신임 집행부(회장 종형)가 광릉부원군 파조님께 고유제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고유제에는 봉수 회장을 비롯해서 광천부원군파 종회 성호 회장, 좌의정공파 종회 충교 회장, 목사공파 종회 춘신 회장, 대종회 곁재 前총무, 종일 강동구청 前극장 등 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날 문수 총무의 진행으로 참석자 소개, 고유제 봉행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 파 종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고유제에는

총회공 종회 前도유사 대행(종성)의 집례로 초헌례 용두 상임, 아헌례에는 종형 광명 종회 회장, 종헌례에는 곁재 前대종회 총무, 목사공파 종회 병진 부회장, 그리고 참판공파 종회 용기 현종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파조님께 헌작하였다. 고유제를 마친 종친들은 음복하며 안부와 덕담을 주고받으며 파조님의 음덕을 듬뿍 받았다. 이어서 자리를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화친 돈목의 시간을 보내고 이날 행사를 모두 마쳤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회성군 (장례원 판결사 諱 時茂) 불천지위 봉행

광릉부원군파 종회에서는 2023년 6월 28일 오전 11시 회성군(諱 時茂) 431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봉수 회장을 비롯해서 총회공 종회 경래 회장, 대종회 용두 상임 부회장, 좌의정공파 종회 충교 회장, 참판공파 종회 선래 회장, 본부제학공 종회 종훈 회장, 문경공파 경수 회장을 대신해서 종민 총무 등 40여명의 참사종인(參祀宗人)이 참석하였다. 제례 전 직손인 문수 총무로부터 공의 애절했던 지난날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종봉 화수회 총무 집례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초헌례에 봉수 회장, 아헌례에 참판공파 종회 선래 회장, 종헌례에는 총회공 종회 경래 회장이 헌작하였다. 축판에는 만재 부회장, 좌, 우 집사에는 종길, 근수, 철래, 종철 현종이 맡아 수고 하였다.

하러 하는가, 비록 지금 내가 선산 밑으로 피난을 가지만 그곳은 서울과 가까운 곳이다. 더구나 나는 일반 백성들과 다르니, 만일 후일에 갑자기 왜적을 만난다면 적들은 반드시 나의 항복을 받으려 할 것이고, 나는 스스로 목숨을 바칠 것이니 너는 후일에 나의 사실을 나라에 알리지 말고, 비문에 새기지도 말라 하고 아들에게 이른 뒤, 가족을 데리고 선산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암사동) 집 뒤에 산기슭은 가파르게 솟아있고 위에는 편편한 대가 있으며 한강이 가로 질러있다. 공은 그 대(臺)를 침신이라 부르고 그 마을을 우모골이라 불렀다.(여기서 침신은 임금의 행차하신 곳을 바라본다는 뜻이며, 우모는 산소가 가까이 있어 부모를 사모한다는 뜻이다.) 공께서는 날마다 이른 새벽에 조복으로 갈아입고, 산대에 올라 임금이 파천하신 북쪽을 향하여 네 번 절하고 임금의 무사 환궁과 국가의 안정을 극진히 빌었다. 그러나 아나니 다를까! 1592년 (陰)5월11일 열여섯 명의 왜놈들이 군복 차림으로, 공께서 대(臺)에 오르기만을 기다렸다가 공께서 나타나시니, 공을 외워싸고 창을 목에 들이대며 항복을 하라고 위협을 하였다. 그러나 공께서는 조금도 굴하지 않으시고, 큰소리로 조선의 대신(大臣)으로 섬나라 왜놈들에게 항복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만 못하다, 하고 왜적을 대갈일성 꾸짖는 소리가 산 밑 집까지 들렸다. 가족들은 모두 놀라서 허겁지겁 산대에 올라 숲으로 숨어서 공께서 화를 당하신 것을 목격하고 왜놈들의 겁탈을 피해 강물에 모두 투강하여 죽음을 택하기로 하였다, 가족들은 투강하기를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였다. 이때 공을 따라 죽은 사람은 공의 부인 전주이씨, 둘째며느리 경주김씨, 손부 광주 안씨, 次子 정견의 손녀, 그리고 次子 정견은 창에 찔려 쓰러졌으나 요

행히 살아났음에도 후일 창 독(毒)으로 인하여 3개월 만에 죽고 말았다. 이처럼 한 집안에서 충신(忠臣)과 열부(烈夫) 열녀(烈女)가 나왔고 하루에 다섯 사람이 죽고, 뒤따라 또 한사람이 죽어 일문육사(一門六喪)를 당하니 나라에서는 이를 기리기 위해 公의 뜻과는 달리 정문(旌門)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공께서는 어떠한 여건에도 두려워하거나 굴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나라와 조상을 위해 숭고한 정신으로 부끄러움 없이 온몸을 바치시었다. 한편 공께서 저술한 역대통지(歷代通志) 45권과 필어(筆語) 12권 가례집(家禮集) 3권이 있었으나 왜란시 방화로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공께서는 왜란(倭亂) 순사 후 순충보국공신에 책봉되었고 자헌대부 이조판서 지경연의금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겸 지충추성군판사 세자좌빈객 오위도 도총부 도총관에 증직(贈職)되고 회성군(淮城君)에 봉작되었다 이후 1599년(선조 32) 의정부 좌찬성 판의금부사 세자이사에 가증(加贈)되시었다.

공의 부인 전주이씨는 종실(임금의 친족) 諱 역(의원군 1520-1544)의 따님이시며 작은할아버지가 중종 임금이다. 끝으로 향축대를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대전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참배

광릉부원군과 종회 화수회(회장 종길)에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2023년 6월 14일(수)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애국지사 묘역에 참배하였다. 이날 종길 화수회장을 비롯해서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 그리고 대전 해주목사공 종회 항재 회장, 범수 전 종회 부회장, 근재 시인, 주돈 박사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현충원 독립유공자 제1묘역에는 단암 용태 선생과 아우 되시는 여산 용준선생 형제분이 모셔져 있으며, 제2묘역에는 동초 종건 선생이 모셔져 있다. 일행은 용태 선생 묘역을 먼저 찾아 참배를 드렸으며,

현화는 해주목사공 종회 항재 회장, 여산 용준 선생 묘소에는 만재 종회 부회장이 헌화하였고 동초 종건 선생 묘소에는 대종회 용두 상임 부회장이 헌화하였다. 이후 일행은 제7묘역을 찾아 용진 전 종회 고문을 기리며 헌화와 편안한 영면을 기원하였다. 현충원에서 참배를 모두 마친 일행은 해주목사공(諱 萬亨) 선조님 묘소를 찾아서 범수 종회 전 부회장이 헌화하였고, 참석자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의 영면을 빌었다. 이후 일행은 해주목사공 종회(회장 항재)에서 마련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문수 총무로부터 애국지사 한 분 한분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종길 화수회장 인사, 해주목사공 종회 용복 총무, 범수 전 부회장, 대종회 용두 상임 부회장 순으로 인사가 있었다. 끝으로 행사와 오



찬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았던 해주목사공 종회 항재 회장, 용복 총무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대전 해주목사공종회 익량공 후손 총회공 선조님 묘소 참배

대전 해주목사공(諱 萬亨) 익량공 종회(회장 익재)에서는 2023년 6월 3일(토) 총회공 선조님 묘소를 찾아 참배를 드렸다. 이날 익재 회장을 비롯해서 종인 45명이 버스를 대절하여 오전 11시경 총회공 선조님 묘소에 도착하였다. 종봉 해설사의 안내로 묘전에 모인 일행은 정성껏 준비해온

주과포를 진설하고 이후 종봉 해설사로부터 총회공 선조님의 행적과 연호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일행은 총회공 선조님의 재실을 둘러보고 기념사진을 찍은 후 신도비 앞으로 다가가서 비문을 읽으며 선조님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공께서 강직한 성품 그리고 5군을 배출함으로써 우리 廣李가 번성함의 기초가 되신 분으로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공의 업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광릉부원군과 종회 총무 문수 書-



■ 문경공(諱 克堪)파종회

■ 문효사(文孝祠) 홍살문(紅箭門) 준공 고유제(告由祭) 봉행

문경공파종회(회장 경수)는 7월 2일 문경공(諱 克堪) 파조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문효사에 홍살문(紅箭門) 설치공사를 준공하고 이에 따른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문효사는 문경공(諱 克堪), 장자 광양군(諱 世左), 증손 광안군(諱 延慶), 5대손 광남군(諱 光岳) 4위의 신주가 봉안된 부조묘(不祧廟)이다. 문경공 선조의 부조묘는 1504년(중종 2년) 중종의 명으로 반송(충주시 금가면 유송리)에 광성사(廣城祠) 현판으로 장자인 광양군(諱 世左)과 함께 봉안하였다. 또한 광안군 부조묘는 1633년(인조 11년) 충북 괴산군 불정면 묘하에 증손 광남군과 함께 탄수사(灘叟祠) 현판으로 신주를 봉안하였다. 그러나 종가가 지금의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연지마을 세장산으로 이주하면서, 1900년 광성사를 이곳으로 이전하여 광성사와 탄수사가 있었으나, 1983년 따로 있던 별묘를 합설하고 현판도 문효사라고 바꾸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낡고 훼손되어 2009년 광주이씨 대종회의 지원을 받아 목재로 전통양식에 따라 신축하였다. 신축할 당시 홍살문 설치를 당연히 해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시간만 흐르던 차 후손들의 아쉬움을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종손의 결단과 문경공파종회의 도움으로 금년 봄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게 되었다. 홍살문



은 홍전문(紅箭門) 또는 홍문(紅門) 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지역이 신성하거나 구격(具格 : 격식과 예절을 갖춘)이 맞는 장소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로 세우던 문이다. 나무로 만든 기둥과 살에 붉은색을 칠하고 문의 상단에도 붉은 화살들이 붙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 태극 무늬가 새겨져 있거나 붙어 있다. 이 태극 무늬를 지나는 붉은 화살들은 서로 꼬여 있어 삼지창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문이 붉은 이유는 붉은 색이 양기를 가져 귀신과 액운을 물리친다는 풍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단을 화살로 장식한 것은 잡귀를 화살로 쏘서 없앤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제 문효사는 제 모습을 갖추었으며, 문경공 후손들에게는 마음속 영원한 성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때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희 문경공 종손과 종부가 준비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다. 또한 먼 길을 마다않고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광릉부원파종회 문수 총무,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과 종성 부회장·종두 총무·조미현 실장,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과 웅재 총무, 좌의정공파종회 시하 총무와 근찬 이사, 충주종친회 원재 회장 등 방손과, 후손으로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총회공종회 경래 회장과 종용 재무, 충북도의회 종갑 부의장을 비롯하여 충주청장년회 회원 및 며느리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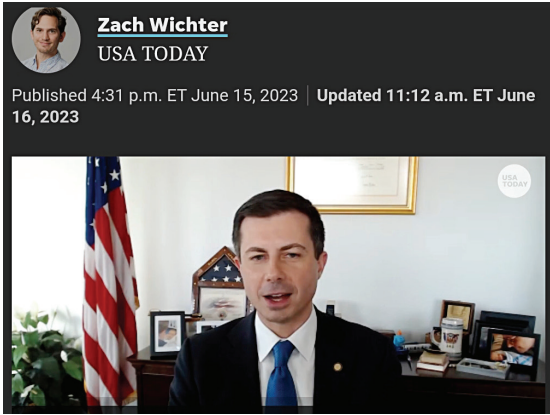
이날 참석자들은 홍살문 테이프 커팅을 마치고 문효사 경내로 이동하여 홍살문 건립 고유제를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인사말에서 문경공 21대 종손 광희는 “원근을 마다않고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종손으로서 2009년도부터 새 집에 4분의 신주를 모셔 오다가, 14년 만에 문경공종회 협조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홍살문을 세우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선조님을 모시는데 열과 성의를 다 할 것을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고 하였다.

고유제는 종부가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제수를 진설하고 초헌에 문경공종회 경수 회장, 아헌에 총회공종회 경래 회장, 종헌에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이 헌작하고, 축에 종철 현종, 집례에 종우 현종, 집사에 근재, 종육, 종대, 종득 현종이 수고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고유제를 끝내고 음복 후에는 다 같이 종손대 농막으로 이동하여 준비한 도시락과 음료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사 및 행사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종손, 종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고유제를 위해서 수건을 찬조하고, 천막 설치 및 의전을 맡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충주청장년회 종인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향축대를 봉헌해 주신 각 지파 종회 및 종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때 일수록 더 돈독해지는 광이의 힘을 가슴으로 느낀다.

■ 광주이씨 후손 주원(柱元) 현종의 미담(美談)

지난 2023년 6월 16일 오전 11시 12분. 미국 USA TODAY 방송의 AIRLINE NEWS에 우리 광주이씨 후손 주원(柱元)현종에 대한 뉴스가 있었기에 미담으로 소개한다. News Anchor의 멘트를 그대로 옮긴다.



USA TODAY 뉴스보도 장면

「이주원씨는 캄보디아에서 조지아주 자택으로 돌아오던 길에 비행기 안에서 긴급하게 의사를 찾는다는 방송을 들었다. 주원씨가 무슨 일인가 하고 앞쪽 현장에 가보니, 한 사람의 백인 신사가 의식이 없이 쓰러져 응답이 없었다. 주원씨는 현직 의사였기 때문에, 심장마비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주원씨는 한국에 기반을 둔 의료투자회사인 k-doc에서 일하고 있었다. 주원씨는 자동 외부제세동기(AED)를 요청했고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주원씨는 모두 4번의 충격을 주었고, 다른 승객들이 돌아가면서 약 25분에서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델타항공 A350기는 승객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니아폴리스로 우회했다. 주원씨는 환자가 한참 동안 의식을 잃었지만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는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승객의 회복을 다른 의학적으로 훈련된 승객들 사이의 “교과” 팀-워크와 에피네프린 IV를 투여할 수 있는 기내 EMT의 능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주원씨는 병원에서 그들이 그렇게 20여 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할 때조차, 그들이 뇌의

손상없이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도 했다. CPR은 매우 질이 높은 CPR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건 이후 환자나 탑승한 다른 의료 제공자들과 연락할 수 없었지만, 도움을 준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을 EMT 집중치료사, 흥부 간호사라고 밝혔다. 델타항공에는 에어버스 A350이 운항한 이 비행기에 조종사 4명과 승무원 11명 고객 28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다행히 미니아폴리스 지상에서 의약품을 재입고하고, 다른 체크리스트를 거친 후 거의 두 시간 늦게 애틀랜타에 도착했고, 연결편을 가진 모든 고객들은 같은 날 최종목적지까지 계속갈 수 있었다.」

주원 현종은 1977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UCLA병원 전문의를 거쳤다. 문경공파 승덕재공(諱 潤慶)의 후손으로 가계는 克堪-世佐-守貞-潤慶-中悅-士溫-必成-休徵-英晚-玄源-觀淵-尙靖-基祚-嘉會-秉銓-昌來-容鎬-續載-鍾成-學洙-柱元이다.

-문경공파종회 총무 종민 記-

■ 좌통례공(諱 克堅)파종회 칠곡 “매원마을”이 마을 단위 최초 국가등록문화재 되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경북도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한 칠곡군 왜관읍 매원마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는 경주의 양동마을, 안동의 하회마을과 함께 영남의 대표적 반촌이다. 또한 조선조말 3인의 만석군, 7인의 천석군이 있어 영남

최고의 부촌으로 꼽히기도 했다. 칠곡의 매원마을은 광주이씨(廣州李氏)의 세거지(世居地)로 영남지역에서 이름난 곳이다. 광주이씨가 이곳에 세거하게 된 것은, 석담선생(諱 潤雨)께서 광해군 14년(1622)에 상지(칠곡군 지천면 상지)에서 이곳으로 이거(移居) 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칠곡의 광주이씨가 집성촌을 이루게 된 것은 좌통례공의 3자인 승사랑공(諱 摯)이 상지에 처음 거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석담선생의 휘는 윤우(潤雨)이고 자는 무백(茂伯)으로 석담(石潭)은 호이다. 1569년 선조 2년에 상지마을에서 태어났다. 매원마을은 17세기 석담선생이 상지마을에서 이거한 후 삼자 鑑湖堂(諱 道章)과 차자 낙촌공(洛村公, 諱 道長)의 차남 박곡공(朴谷公 諱 元祿)이 뿌

리를 내려,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영남 지방의 대표적인 동족(同族) 마을 중 한 곳이다. 가옥 및 재실, 서당 등을 비롯해 마을 옛길, 문중 소유의 문전옥답, 옛터 등 역사성과 시대성을 갖춘 다양한 민속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가 충분하다. 400여 년 역사를 품은 유서 깊은 이 마을은 한 때 400여 채의 가옥이 있었지만, 한국전쟁 때 전쟁의 포화에 폐허가 된 탓으로, 현재는 고택 60여 채가 남아 있다. 2022년 10월 7일에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감호정사에서 「석담 이윤우선생 매원 입향 400주년 학술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이 성대히 거행된 바 있다.

재경화수회 6월 정기 월례회의 개최

광주이씨 재경 화수회(회장 충교)는 2023년 6월 15일 재경 화수회 6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 19 전염병도 잠잠해지고, 회원들 간의 친목 모임인 화수회에 1계~12계 회원들은 모두 다 반가운 마음으로 화수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11계 회원으로 14명의 신입 회원이 등록하

는가 하면 충교 회장도 회원 수 배가에 노력해야 된다고 인사하였다. 이어서 대총회 용두 상임부 회장,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 문경공파 종회 경수 회장, 전 대총회 재진 회장, 석탄공종회 만술 회장의 인사가 이어졌다. 회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화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되

었다. 회의를 마치고 각 계별로 모여 반주를 곁들인 만찬을 즐기고 다음을 기약하며 6월 정기모임을 마쳤다.

-재경화수회 총무 시하 記-

애서운동가 이양재의 고족보 이야기 [5]

- 제6회, 초·재간보 발행의 전성기 조선중·후기 -

지난 제2~3회 연재에서는 현존하는 임란전 고족보 7종을, 제4~5회 연재에서는 임란 후 광해군 시기의 고족보 11종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제5회 연재의 끝부분에서 “인조(仁祖, 재위 1623~1649)때부터 경종(景宗, 재위 1720~1724) 말년(1724)까지 나온 초간보와 재간보, 이후 영조(英祖, 재위

1724~1776) 때부터 순조(純祖, 재위 1800~1834) 말년(1834)까지의 초간보도 시대적 특징을 달리하고 있으며, “대체로 우리나라의 명문가 가운데 몇 가문은 늦게 초간보를 내었는데, 순조 말기에 초간보를 발행한 명문가도 몇 가문이 있다. 물론 그러한 늦깎이 초간보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라고 언급하였다. 이번 제6회에서는 제5호 연재에서 약속하였듯이 인조1년(1623)부터 순조 말년(1834)까지의 각 문종의 초간보를 위주로 한 고족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요시 일부 족보는 간략한 설명도 기재한다. 필자 소장본의 이 고족보 목록은 5~6전에 만든 일부 소장본 목록이다. 그러므로 만약 후일 본 원고를 증보 정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필자 소장본 목록을 완성하고,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각 문종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족보를 종합하여 소개할 것을 약속드린다.

가. 현존하는 인조 초년(1624)부터 경종 말년(1724)까지의 조선전기 100년간의 고족보

㉔인조(仁祖, 재위 1623~1649) 초년(1624)부터 ㉕효종(孝宗, 재위 1649~1659)과 ㉖현종(顯宗, 재위 1659~1674), ㉗숙종(肅宗, 재위 1674~1720)을 거쳐 ㉘경종(景宗, 재위 1720~1724) 말년(1724)까지, 약 100년간 다섯 왕의 재위 기간에 여러 중요 문종에서 족보 편찬을 하였다. 이 시기에 인쇄된 고족보는 대개가 목판본이다.

[예안김씨족보], 1627년, 초간보, 1책, 목판본. 목판본이기는 하지만, 매우 간략한 가승보 수준의 족보이다. (인조 재위 기간(1623~1649)에 나온 고족보는 매우 희소하다. 丁卯胡亂(1627년)과 丙子胡亂(1636년)의 餘波일 수도 있다.)

[야로송씨족보], 1650년 이전, 초찬보, 1책, 필사본.

[평양박씨족보], 1653년, 초간보, 1책, 목활자본.

평양은 순천의 옛 이름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평양박씨는 순천박씨이다. 사육신 가운데 한 분인 박팽년(朴彭年)과 그 자손들이 수록되어 있다.

[동래정씨족보], 1655년, 초찬보(초고본), 2권2책, 필사본.

상권은 계보이고, 하권은 문헌록이다.

[동래정씨소보], 1800년대 초, 2권2책, 필사본.

[청주이씨족보], 1657년, 초간보, 3권1책, 목판본.

[남양홍씨족보](唐洪), 1658년, 초간보, 7권4책중 2책(책3·책4, 낙질), 목판본.

[남양홍씨족보](唐洪), 1760년대, 초고, 1책, 필사본.

[화순최씨가보], 1660년경, 초찬보(원고본), 1책, 필사본. 출생순으로 되어 있으며 외손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밀양박씨족보]-1(一代 朴鉉), 1662년, 초간보, 3권1책, 목판본.

[신평송씨족보], 1667년, 초간보(정미보, 원고본), 1책, 필사본.

[신평송씨족보], 1703년, 재간보, 2권2책, 목활자본.

[영광정씨세계], 1669년, 초찬보(기유년 원고본), 1책, 필사본.

[삭녕최씨족보], 1684년, 초간보, 1책, 목판본.

[성주이씨족보], 1687년, 재간보(정묘보), 3권3책, 목판본.

[성주이씨족보] 초찬보는 1464년 갑신보라 하지만 후대의 족보에 서문만 남아있고 현존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계파(系派)의 초보(抄譜)였을 가능성이 높다. 1545년 을사보가 재찬보인데 그 일부가 초보로 남아있다고 한다. 1613년 계족보 1책은 목판본이다. 따라서 1687년 정묘보가 실제로는 재간보이다.

[신창맹씨족보], 1675년, 삼찬보(초간보), 1책, 목판본.

[신창맹씨족보], 1762년, 재간보, 2책, 목활자본(

[나주압해정씨족보], 1677년, 초간보, 1책, 목판본.

[풍기진씨세보], 17세기 후반, 초찬보(원고본), 2책중 건(乾)권, 필사본.

[계림김씨세보], 1684년, 초간보, 1책, 목판본.

[삭녕최씨족보], 1684년, 초간보, 1책, 목판본.

6칸의 횡(橫) 칸에 11개의 종(從) 칸을 만든 특이한 편집을 하고 있다. 서문은 최연(崔蓆, 1576~1651)이 1648년에 지은 것이지만, 발문은 그의 아들 최수지(崔修之)가 1684년에 지은 것이다. 즉 이 책은 대를 물려 편찬하고 간행한 초간보이다.

[양씨대족보](남원), 1686년, 초간보, 2편1책(上卷), 목판본.

[청주경씨족보], 1689년, 재간보, 2권1책, 목판본.

[창녕조씨족보], 1693년, 재간보, 4책중3책(권4 缺), 목판본.

[남원양(梁)씨족보], 1665년, 초간보, 9권5책, 목판본.

[의령남씨족보], 1697년, 초간보, 4권2책, 목판본(함흥부).

[태인허씨족보], 1698년, 초간보, 3권2책, 목판본.

[담양전씨족보], 1700년, 초간보, 2권1책, 목판본(宜寧 寶泉寺).

[원주원씨족보], 1700년경, 초편보(초고본), 1책, 필사본.

[원주원씨족보], 1740년, 초간보, 5권2책, 목판본(振威 余洞).

[초계정씨족보], 1700년 전후, 4권4책중 권1(낙질), 목판본.

[초계변씨족보], 1700년대 초, 권2(낙질 1책), 목판본.

[밀양박씨족보]-2(一世 朴陟), 1701년, 초간보(永嘉府刊), 3권1책, 목판본.

1662년 판 [밀양박씨족보]-1과는 파가 다른 족보이다. 이 시기만 해도 인구가 많고 파가 많은 문종에서는 상대(上代)의 통일된 계보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혈족상 연결점을 찾지 못하면 각기 초간보를 내었다.

[영성정씨족보], 1701년, 삼찬보(초간보?), 1책, 목판본.

[진주류씨족보], 1702년, 초간보(죽포촌사), 3책(영본), 목활자본.

[신평송씨족보], 1703년, 재간보, 2책, 목판본.

[경주김씨족보], 1711년, 재간보, 2책, 목판본.

[죽산박씨족보], 1716년, 초편보(초고본), 1책, 필사본.

[연주(성산)현씨족보], 1710년대, 초찬보(원고본), 1책, 필사본.

[나주나씨족보], 1721년, 초간보, 2권2책, 목판본.

[장수황씨족보], 1723년, 초간보, 2책중 권2, 목판본.

나. 현존하는 영조 초년(1725)부터 순조 말년(1834)까지의 조선후기 110년간의 고족보

㉙영조(英祖, 재위 1724~1776)와 ㉚정조(正祖, 재위 1777~1800), 순조(純祖, 재위 1800~1834)까지의 세 왕의 110년 재위 기간에 이전 100년보다 배수 이상의 고족보가 출판되었다. 특히 영조 재위 기간에는 각 문종에서 초간보와 고족보 간행의 붐이 일었다고 할 만하다. 특히 이 시기 110년간의 고족보는 영조 중반에 이르러서는 목활자본의 비중이 차츰 높아져 간다.

[전주류씨족보], 1726년, 재간보, 5권4책, 목판본(평창군).

[창녕조씨족보], 1728년, 초간보, 1책, 목판본.

[우주황씨족보], 1729년, 초간보, 2책, 목판본.

[연안차씨세보], 1730년, 중간부(초간보?), 2책, 목활자본.

[도강김씨족보], 1730년경, 초간보, 1책, 목판본.

[금성나씨족보], 1730년대, 초간보, 3권3책, 목판본.

[인산정씨족보], 1733년, 재편보(초간보), 1책(권1, 영본), 목판본.

[광주정씨세보], 1736년, 초찬보(원고본), 2책, 필사본.

출생순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외손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인천채씨세계], 1736년, 채지홍의 세계, 1책, 필사본.

[인천채씨족보], 1749년, 초간보, 3권3책중 권1(낙질), 목판본.

[기계유씨족보 별록(부록)], 1738년, 1책, 목판본.

[교하노씨족보], 1739년, 초간보, 6권2책, 목판본.

[함안조씨세보], 1739년, 초간보, 9편3책중 책2결, 목판본. 사자관(寫字官) 서체.

[평양조씨세보], 1739년, 초간보, 1책, 목판본. 출생순으로 기록.

[한산이씨세보], 1740년, 재간본(상주목), 8권8책, 목판본.

[징양강씨세보], 1740년, 초간보, 2책중 권하, 목판본.

[나주오씨세보], 1741년, 초찬보(원고본), 1책, 필사본. 출생순으로 기록.

[부안김씨족보], 1741년, 재찬보(초고본), 1책, 필사본. 출생순으로 기록.

[양주조씨세보], 1743년, 초간보, 6권2책, 목판본.

[포산곽씨족보], 1743년, 초간보, 8권8책, 목활자본.

[포산곽씨세보], 1790년, 파보 초간보, 1책, 목활자본. 표암 강세황 서문.

[강릉김씨족보], 1743년, 재간보, 6책, 목판본.

[강릉김씨족보], 1846년, 삼간보, 4책, 목활자본.

[선성김씨족보], 1744년, 재간보, 1책, 목판본.

[풍산류씨세보], 1754년, 초간보, 2책, 목판본.
 [원주이씨족보], 1745년, 초간보(원주 九龍寺刊板因置之), 4권 2책중 권하, 목판본.
 [원주이씨족보], 1767년, 재간보(砥平 廣巖), 2권2책, 목활자본.
 [원주이씨세보], 1826년, 삼간보(원주 邀仙巖), 5권5책, 목판본.
 [영천이씨족보], 1746년, 초간보, 4권2책, 목활자본.
 [담양국씨족보], 1746년, 초간보, 2권2책, 철활자본.
 [진주소씨족보], 1747년, 초간보, 14편4책, 목판본(익산회곡 월명암).
 [진성이씨족보], 1747년, 재간보, 4책, 목판본(가창재사)
 [청도김씨족보], 1747년, 초간보, 5권5책, 목활자본.
 [평강채씨족보], 1749년, 재간보, 4권4책, 목판본.
 [평강채씨족보], 1792년, 삼간보, 4권4책, 목판본.
 [남해김씨족보], 1748년, 초찬보(원고본, 능주 가승동 후곡재실), 2책, 필사본.
 [순창설씨족보], 1749년, 초간보, 3권3책, 목판본.
 [고성이씨세보], 1753년, 재간보, 10권9책, 목활자본.
 [파주염씨족보], 1753년, 재간보, 2권2책, 목활자본(나주 쌍계사).
 [풍산류씨세보], 1754년, 초간보, 2권2책, 목판본.
 [풍양조씨족보], 1760년, 재간보, 권1~4(영본), 목판본.
 [청하이씨세보], 1762년, 초간보, 3권2책, 목판본.
 [광산이씨세보], 1762년, 초간보(?), 능주 개천사 개간, 2권2책, 목활자본.
 [전주최씨족보], 1762년, 재간보, 3권3책, 목판본.
 [합천이씨세보], 1700년대 중반, 초간보, 4권4책, 목판본.
 [이천서씨족보], 1763년, 재찬보(초간보), 5권2책, 목판본.
 [용궁전씨세보], 1765년, 초간보, 2책중 권상(卷上) 1책, 목활자본.
 [청주양씨족보], 1766년, 초간보, 6권4책, 목판본.
 [남원양씨족보], 1766년, 초간보, 8편3책, 목활자본.
 [광주김씨족보], 1766년, 초간보, 1책, 목활자본.
 [서산류씨족보], 1766년, 3책중 수권1책(영본), 목활자본.
 [반남박씨세보], 1766년, 1책, 필사본.
 [인동장씨족보], 1767년, 초찬보(원고본), 1책, 필사본.
 [언양김씨족보], 1767년, 초간보, 권1(영본); 목활자본. 흥계희 서문.
 [밀양손씨족보], 1768년, 재간보, 5권5책, 목활자본.
 [충주석씨족보], 1769년, 초간보(三嘉譜所), 2권2책, 목활자본.
 [부안(부령)김씨족보], 1774년, 채찬보(초간보), 2권2책, 목활자본.
 [덕수이씨세보], 1776년, 삼간보, 4책, 목판본.
 [남해김씨족보], 1778년, 초간보, 1책, 목판본.
 [기성정씨보첩], 1780년, 정덕주(丁德綱)의 초고본(원고본), 1책, 필사본.
 [광산김씨족보], 1783년, 초간보, 6책, 목활자본.
 [신창표씨세보], 1787년, 재간보, 권1(영본) 1책, 목활자본.
 [홍주이씨족보], 1788년, 재찬보(초간보), 3권3책, 목판본.
 [평해황씨세보], 1790년, 재찬보(초간보), 6권3책, 목활자본.
 [남원양씨외예보], 1791년, 1책, 목판본.
 양성지(梁誠之)의 외손중에 명인의 계대만을 수록한 외손 중심의 계보. 사자관 서체.
 [안동일직손씨세보], 1700년대 후기, 원고본, 1책, 필사본.
 [김해김씨세보], 1799년, 초간보(金國鉉序), 3책, 목활자본.
 [죽산안씨족보], 1801년, 초간보, 3책, 목판본.
 [고창오씨세보], 1801년, 재간보, 7권4책, 서문은 무신자본, 계보는 인서체 목활자.
 [고성남씨족보], 1802년, 초간보, 6권2책, 목활자본.
 [순창조씨세보], 1802년, 초간보(충주 팔봉서원), 2권2책, 목활자본.
 [창원황씨거청주세보], 1802년, 황성일 원고본, 1책, 필사본.
 [하동정씨족보], 1803년, 초간보, 2권2책, 목활자본.

[의흥예씨족보], 1804년, 초간보, 2권2책, 목활자본.
 [광주반씨족보], 1805년, 재간보, 3권3책, 목활자본.
 [옥구장씨족보], 1806년, 재간보, 2권2책, 목활자본.
 [덕수장씨족보], 1808년, 초간보(진위), 2권2책, 목활자본.
 [서촉명씨세보], 1812년, 삼간보, 권1(영본), 목활자본.
 [옥천육씨재수족보], 1817년, 재간보(완산 죽리정사), 3권3책, 운각인서체철활자본.
 [안악이씨세보], 1819년, 초간보(진주 梧坊齋), 3권3책, 목활자본.
 [청주고씨족보], 1820년, 초간보, 1책, 목활자본.
 [결성정씨족보속권], 1823년, 재간보, 1책, 정리자체 철활자본.
 [우계이씨세보], 1827년, 초간보(정해보), 3책, 운각인서체철활자본.
 [청주정씨세보], 1827년, 오찬보(재간보, 성주 회연서원), 6권 6책, 목활자본.
 위의 목록에서 전주이씨 가문의 족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전주이씨 가문의 족보는 의외로 편찬이 늦어 조선 중기 이후로 내려오는데, 그 출판이 다양하여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의 일부 소장본을 소개하며 이번 회를 마치고자 한다. 다음 회의 [광주이씨회보]에서는 우리나라의 각종의 이색(異色) 계보류를 소개하고, 본 연재의 막을 내리고자 한다.

다. 우리 함께 한민족의 얼을 지켜나갑시다

필자는 경기도 포천의 한 보수적인 유학자(儒學者) 이종래(李宗來) 선생의 손자로, 천도교인이었던 독립운동가 이병식(李秉植) 선생의 증손자로 태어났다. 내가 20세 때인 1975년부터 현재까지 48년간 각 문종의 고족보와 일부 문중 관련 자료, 조선중기와 후기에 활약한 선현들의 유묵, 그리고 독립운동가 자료를 집중하여 수집한 것은 보수적인 유학자이었던 조부와 독립운동가이었던 증조부의 민족주의적 영향이었던 것 같다. 성인이 되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나는 개화기에 들어온 우리나라 기독교에 관한 자료도 상당수 수집하였지만, 어려서부터 우리 민족의 지켜야 할 역사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적인 생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나는 입(口)만 보수인 얼치기 보수파, 즉 수구(守舊)가 아니라, 우리의 얼을 지키는 '진(眞)짜 보수파(保守派)'이다. 즉 나는 무조건 혁파를 주장하는 '진보(進歩)'보다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자 하는 '진짜 보수(眞保)'이다.

필자가 지난 48년간 꾸준히 수집한 2,000여 점의 자료만 가지고도 '고족보 박물관'이나 '독립운동가기념관', '성서박물관' 등등의 전문박물관 3~4개의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는 이들 자료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하여 재산 상당액을 출원한 소규모의 재단법인을 2009년에 설립하였다. 지금 돌이켜 보면 나는 20대부터의 모든 수입을 이러한 고서 및 고문헌 수집에 쏟아 부은 듯 싶다. 지금 소장하고 있는 150여 문종의 중요 고족보 및 문중 자료 등 400여 점 이상, 한음 이덕형(李德馨)과 구암 허준(許浚) 등등 선현들의 유묵 5백여 점 이상, 그리고 독립운동가 자료 400여 점과 성경 및 기독교 자료 300여 점, 미술품 300여 점 등등을 분산 기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완성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데, 병약한 필자는 이제 그럴 여력이 없다.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도합 2,000여 점과 심지어 재단법인과 그 고정 재산인 제주의 오피스텔(실평수 602㎡) 등등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지자체나 단체에 일괄하여 무상(無償) 기탁하거나 양여(讓與)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은 먼데 몸은 병약하니, 이제 나는 '독도박물관장'이었던 존경하는 절친 고 이종학(李鍾學) 선생이 발걸음을 따르고자 모색한다. 정확히 말하면 민족과 나라를 위한 이 공익사업을 완성할 지자체나 기업이 나오면 필자는 해당 수집품을 기증, 또는 영구 위탁할 생각이다. 이것이 나의 수집품에게 제 가치를 찾아주는 길이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민족혼(民族魂)과 문화는 영원히 후대에 전해야 한다. 우리의 민족문화가 세계속에 살아 있을 때 우리나라와 민족은 지켜질 것이다. 절친 고 이종학 선생이 요즘에 더욱 더 그렇다. (2023.07.05.)

-좌의정공파 후손 애서운동가 백민 이양재-

제28회 “둔촌청소년문학상” 우수작품 소개[1]

최우수상 경기도지사상

[초등부]

“모범적인 삶을 사신 둔촌 선생님”

산의초등학교 6학년 김 하 늘

둔촌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답임 선생님이 둔촌에 대한 글을 써보라 하시면서 둔촌 청소년문학상 공문을 보여주셔서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문을 보는 순간, 분당에 있는 외가에 가 산책하러 나갔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보았던 비석에 써 있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제목은 <둔촌선생 정훈>이었습니다.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 하여도
경서 한 권 가르침만 못하느니라.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일지라도
너희를 위해 간곡히 일러두노라.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시간을 아껴 부지런히 공부에 힘써라.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하느니
머리맡 세월은 멈추지 않고 빠르기만 하도다.

금보다 젊을 때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은 가르침
이라는 내용에 집에 돌아와 자료를 보고 깜짝 놀

랐습니다.

첫째, 선생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고려 역사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민왕 때 신돈은 나라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신돈에게 바른말을 하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신돈의 잘못된 정치를 비난하였습니다. 어느 지도자나 바른말, 곧 직언하는 부하가 있어야 한다던데 선생님은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선생님의 용기와 신념에 감탄했습니다.

둘째, 선생님의 효도입니다. 선생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어서 같이 숨었습니다. 숨은 곳이 지금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이 되었습니다. 이곳도 안심할 수 없어 멀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선생님의 친한 친구 최원도, 그러나 이 분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망쳐야 했습니다. 혼자 갈 수 없어 아버지와 경상북도 영천으로 가면서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걷고 뛰면서 얼마나 힘들었나요? 맹수를 어떻게 피하셨나요? 밥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늙은 아버지를 업고 땀 때 무슨 맘이 드셨나요?

셋째, 두 분의 우정입니다. 친구 최원도는 선생님을 무려 4년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최원도는 자신의 어머니 묘소 밑에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알려진다 보면 같이 처형될 텐데 참 대단한 우정입니다. 4년

뒤 신돈이 죽으므로 선생님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헤어지면서 심정은 어떠셨나요? 헤어질 때 최원도가 시를 지어서 이별을 아쉬워했다니 이런 우정이 또 있을까요? 저도 이런 친구를 만나 우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넷째, 여종 제비의 의리입니다. 제비는 3명이 함께 밥을 먹는 걸 우연히 보고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발각되면 큰일이 날 거라고 밤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길래 자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 사기꾼이 많습니다. 형제끼리 또는 부부끼리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어제도 동반자살이 있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의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비처럼 의리를 지킨다면 이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비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선생님은 평소에도 제비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사셨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사과하셨죠?

선생님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관직에 나가지 않으셨죠? 지조를 지키셨습니다. 오늘날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으면 사회는 한층 밝아지고 깨끗해질 겁니다. 선생님을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선생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에 후손들이 변창하였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저도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삶을 살 고자 다짐해 봅니다.

[중등부]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해주 시는 둔촌 선생님”

보라중학교 3학년 김 연 재

중간고사가 끝나고 등산을 즐기는 아빠를 따라 수원 광교산에 올랐다. 점심을 먹으려고 내려오다가 안내문을 읽어보니, 창성사라는 절의 유래가 적혀 있었다. 자세히 보니 낯익은 이름이 보인다. 아, 둔촌 이집. 1340년대라 하니 둔촌 선생님이 20살 무렵에 이 절을 지나면서 시를 읊은 것이다. 안내문을 읽다가 위인은 많은 흔적을 남긴다는 국어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3년 전부터, 둔촌 선생님이 관한 글을 써 왔다. 작년까지만 해도, 둔촌 선생님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기만 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그런 지혜를 닦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을 생각하니 가장 먼저 효심이 떠오른다. 그러자, 사회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국 송나라 무역사 손목이 지은 책, <계림유사>가 생각났다. 이 책에서 손목은 고려를 군자의 나라라고 칭찬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도덕 정신이 뛰어나 중국인이 어른 공경이 존경스럽기 때문이다. 도덕의 근본이 되는 효심이 훌륭한 것을 본 것이다. 효는 도덕의 기본이고, 사람이라면 갖춰야 하는 필수 덕

목이다.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를 등에 업고, 산길을 올라 걷는 모습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끔 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16살이 되고 나 자신의 주장이 강하게 되면서 효도에 경솔해진 것 같아서 부모님께 죄송스럽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16년간 애써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충족할 수 있는 딸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선생님처럼 항상 효심을 마음에 품고 생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나라의 신하로서 빠트릴 수 없는 충성심 또한, 선생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다. 자신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신 대범함이 존경스러웠다. 신돈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 모두 위협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돈의 잘못을 떳떳하게 언급함으로써 나라와 국민을 살리고자 하는 선생님이 위대하게 느껴졌다.

만약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높은 사람을 비판하면 어떻게 될지 알기에 입 한 번 못 열 것 같다. 나라가 잘못 되자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신돈을 비난하신 선생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이러한 선생님의 모습을 본

받아서 어떤 일이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용기를 기르고 싶다.

선생님의 효도만큼 기억에 남는 우정이 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곡 백원도 선생님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부러웠다. 만약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 반대로 봤을 때, 내 친구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나 역시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서로에 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과 천곡의 영화 같은 우정을 배워 서로를 믿는 의리를 키워나가고 싶다.

우정은 단지 서로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피어오르는 것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깊은 우정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 관포지교라는 한문 시간에 배운 고사성어가 있다. 자신이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는 우정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참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존경스러웠다. 돈독한 우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나부터 마음이 열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요즘 사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제비의 주

인을 위한 사려 깊은 의리도 생각한다. 평소보다 밥의 양이 매우 많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제비가 주인의 밥 먹는 모습을 엿보다 주인 한 명이 아닌 세 명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제비는 고민하다가 천곡의 마님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마님 또한 한 집 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결국, 제비는 비밀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자살을 택하게 된다.

오늘날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도 생길 만큼 이혼을 하는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혼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불행한 결과이다. 재산 분배를 두고 형제가 서로 싸움을 벌이는 일도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좋게 해결할 수 있지만, 본능적인 감정이 앞서서 행동하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 나중에 오빠랑은 재산을 두고 감정적으로 나서지 말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다. 임금이 궁녀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본 왕비는 질투하는 마음에 임금의 귀를 잡아당겼다. 그로 인해 귀가 커진 임금은 귀를 가리고 다녔다. 임금의 귀마개를 만들다가 귀를 본 신하는 대나무 숲에 가

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며 크게 소리친다. 그만큼 비밀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제비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살을 택했다.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한 우리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기에 더욱 그 의리를 닮아가고 싶다.

해가 바뀌어 나이가 한 살 많아질 때마다, 둔촌 선생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나 자신이 성숙해지는 느낌이다. 올해는 선생님의 지혜로운 모습을 닮아가야겠다는 다짐을 따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고등부]

“진짜 뿌리 깊은 나무를 보았다”

능동고등학교 2학년 최 희 주

엄마, 아빠는 부부교사다. 엄마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아빠는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신다. 엄마, 아빠는 경기도 광주가 고향으로 고등학교 동창이다. 1학년 때부터 성격이 잘 맞았고 같은 교사가 되자고 경쟁하면서 공부했다. 엄마는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아빠는 같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가서 나라히 임용고시에 붙어서 근무하다가 결혼하셨다.

4월 28일, 중간고사가 끝나서 친구들과 놀고 집으로 갔다. 두 분 모두 퇴근하셨는데 시험이 끝났다고 삼겹살 파티가 벌어졌다. 약간 술이 오른 아빠가 말씀하신다. 그동안 엄마와 아빠는 가문 자랑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셨다고 한다. 마치 고등학교 때 경쟁하듯이. 아빠는 경주 최 씨다. 200이 넘는 한국의 집안 중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가장 잘 실천한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경주에서 사방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유언을 지켜 진짜 400년 동안 아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아빠는 엄마 가문에는 못 미친다고 한다. 엄마는 고향 광주의 광주 이 씨다. 고려 말 충신이며 효자인 둔촌 이집 선생님의 후손이다. 집안에 유명한 인물이 끝도 없이 많은데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이종훈 선생님은 동학운동에도 참여한 애국자 중 애국자라 한다.

엄마는 둔촌 이씨 집안에서 둔촌청소년문학상을 시행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꼭 써보라고 공문을 보여주셨다. 호기심이 생겼다. 나도 엄마처럼 국어교사가 되고 글을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료를 많이 읽었다. 그렇지만 왜 아빠 집안이 엄마 집안에 못 미치는지 이유를 알았다. 국어시간에 배운 <용비어천가> 2장이 생각났다.

불휘 기픈 남긴 북루매 아니 뿔씨 꽃 도쿄 여름 하늬니
시미 기픈 트른 구마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루래
가늬니

그렇다. 엄마 곧 나의 외가 집안의 둔촌 이집 선생님은 ‘뿌리 깊은 나무’요, ‘샘이 깊은 물’이었다.

둔촌 선생님은 충절, 효심, 우정, 의리, 지조를 모두 갖춘 선비의 모범이 되는 분이였다. 먼저 충절이다. 공민왕 때 신돈의 위력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신돈을 비난한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같았다. 선생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신돈을 비난하였다.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보면서 아빠의 말씀이 생각났다. 어느 역사가 위태위태한 조선이 500년이 넘게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에게 직언한 선비들의 의기 때문이었다.”는 말이다. 선생님은 이를 실천하신 것이다. 오늘날 대통령에게 둔촌 선생님처럼 직언할 수 있는 분이 많아야 할 텐데...

다음으로 선생님의 효심이다. 신돈에 의해 체포령이 내려지자 선생님은 숨어야 했다. 바위굴에 숨었으니 지금의 둔촌동이다. 선생님의 호는 여기에서 온 것이다. 그 좁은 굴에 늙은 아버지와 같이 숨었으니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나 이곳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선생님은 밤새 고민했을 것이다. 친척에게는 갈 수 없었다. 누가 좋을까. 그렇다, 성균관에서 동문수학한 최원도가 떠올랐다. 가자, 최원도는 분명히 우리 부자를 지켜 줄 것이다.

선생님은 늙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300km나 떨어진 경상북도 영천 땅에 사는 친구 천곡을 찾았다. 낮은 안심하고 다니기 어려우니 밤마다 늙은 아버지를 업고 걸어갔을 것이다. 그때 그 험난한 길을 어떻게 헤치고 갔을까? 맹수의 위협은 어떻게 견뎠을까? 이 효심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으로 가장 빛나는 덕목이 효도임을 선생님을 통해 알았다.

이 효도를 우리 집은 실천하고 있다. 부모님은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효도를 다하신다. 다 가까이 사시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고, 선물과 용돈도 드린다. 나와 동생도 이를 보고 있으니 나중에 커서 이를 꼭 실천하고 싶다.

또한 두 분의 진한 우정이다. 몇 달만에 도착한 천곡의 집에서는 마침 그의 생일이라 인근 주민들이 모여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짐 문간방에 아버지를 내려놓고 몸을 쉬고 있었다. 친구가 소식을 듣고 뛰어나왔다.

그가 소리쳤다. “망하러면 혼자 망할 것이지 어찌하여 우리 집안까지 망치려 하는가?”하고는 친구 부자를 내쫓아 버렸다. 쫓겨난 둔촌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친구의 마음을 백번 이해했다. 둔촌과 늙은 아버지는 덤불에 몸을 숨기고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아나나 다들까 천곡은 날이 어두워지자마자 둔촌을 찾아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천곡은 이들에게 다락방에 숨겨주었다. 세끼 음식은 어떻게 했으며, 분노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빨래는 어떻게 했을까?

2년 뒤 둔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남몰래 조용히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도 자신의 어머니 무덤 밑에 산소를 쓰도록 하였으니 이 우정을 무엇으로 다할 수 있을까? 관포지교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2년 뒤 신돈이 죽자 선생님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때 이별의 아쉬움을 최원도가 시로 지었으니, 마땅히 선생님이 지었어야 하는데, 이보다 더한 우정은 없다. 나도 아직 이러한 친구를 만나보지 못했다. 앞으로 나도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어 줄 친구를 사귀어보고 싶다.

이어서 제비의 의리를 빼놓을 수 없다. 제비는 천곡의 여종이었다. 천곡은 친구 부자를 다락방에 숨겨주며 가족들에게까지 비밀로 하자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천곡은 밥을 많이 달라고 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종 제비가 우연히 이를 보았다. 제비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결을 선택하였다. 평소에 얼마나 주인의 은혜를 받았기에 자살을 선택했을까? 제비의 의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리어 온다.

4년 만에 고향 광주로 오면서 선생님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얼마나 울었을까? 친구 최원도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표했을까? 제비의 무덤 앞에서 얼마나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을까?

엄마에게서 둔촌 선생님에 대한 글을 쓰라는 말씀을 듣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여기에 진짜 뿌리 깊은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크고 건강하게 자란다. 이런 선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둔촌 선생님의 후손이 어떻게 잘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관정 이종환장학재단의 설립자 이종환 선생님과 둔촌 선생님의 후손이다. 아시아 최대의 장학재단이라 하니 이것이 곧 뿌리 깊은 나무의 전형이다.

나 또한 둔촌 선생님의 후손으로서 선생님의 충절, 효심, 의리, 지조를 본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나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후손의 모범이 되는 조상이 되었으면 한다.

산악회 아차산 등반

재경화수회 산악회(회장 종철)는 지난 6월 25일(일요일) 서울시 광진구 소재 아차산을 등반하였다.

아차산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에 걸쳐 있는 산으로, 높이는 해발 295.7m이다. 예전에는 남쪽을 향해 불뚝 솟아오른 산이라 하여 남행산이라고도 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아끼산·아기산·에끼산·엑끼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오전11시, 지하철5호선 아차산역에서 회원 20

명이 모여 산악대장 안내에 따라 영화사를 거쳐 12시경 해발160m에 위치한 봉수대에 올랐다.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관을 감상한 일행들은 다음 행사계획을 의논한 후 하산하여, 인근식당에 자리를 하고 식사와 덕담을 나누면서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산악회 다음행사는 다음달 7월 16일(일) 오전 7시 성남 둔촌선생 묘역에 모여 정화작업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점심식사는 산악회에서 제공한다. -산악회 총무 성수 기-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5월 구독 및 찬조			이중화	10,000	충북 충주	이정래	10,000	전남 영광	이 승	10,000	경기 파주
이석재	10,000	충남 청양	이수재	10,000	경기 이천	이 백	10,000	인천 남동	이용구	10,000	경기 남양주
이일재	10,000	전북 완주	이종욱	10,000	충북 충주	이종성	10,000	경기 이천	이동호	10,000	경기 양주
이중수	10,000	경남 마산	이일부	10,000	충북 충주	이재석	10,000	서울 영등포	이식래	10,000	서울 성동
이용춘	10,000	광주 북구	이정재	10,000	대전 동구	이용환	10,000	경기 의정부	이상권	10,000	경기 고양
이재희	10,000	서울 서초	이종웅	10,000	서울 동작	이치만	10,000	서울 도봉	이동재	10,000	경남 사천
이용문	10,000	충남 홍성	이종원	10,000	충북 충주	이창재	10,000	서울 강서	이상순	10,000	서울 중랑
이용술	30,000	서울 동대문	이종길	10,000	경기 안산	이강래	10,000	서울 관악	이종선	10,000	전남 영광
이건규	10,000	서울 광진	이형수	10,000	충북 충주	이용장	10,000	전남 영광	이민래	10,000	경기 광명
이용운	10,000	부산 수영	이중우	10,000	충북 음성	이용식	10,000	서울 송파	이병록	10,000	경기 수원
이필수	10,000	서울 강남	이종한	10,000	서울 강동	이원래	10,000	서울 중랑	이찬래	10,000	전북 고창
이창수	10,000	경기 하남	이호재	10,000	충북 충주	이용진	10,000	울산 울주	이규형	10,000	전남 영광
이오륜	10,001	경기 양평	이종태	10,000	경기 양평	이문수	10,000	경기 이천	이광서	10,000	전남 영광
이주홍	10,000	경기 안산	이종용	10,000	경기 양평	이 길	10,000	전남 영광	이종대	10,000	경기 이천
이동완	10,000	전북 전주	참판공파총회 10,000 X 43명 =430,000			이준수	10,000	전남 순천	이대수	10,000	경기 이천
이재선	10,000	전남 보성	이용주	10,000	경기 광명	이용권	10,000	서울 관악	이종찬	10,000	경기 이천
이풍재	50,000	충남 부여	이인재	10,000	충북 제천	이명래	10,000	울산 울주	이승엽	10,000	울산 울주
이득래	10,000	전남 나주	이종섭	10,000	경기 고양	이용무	10,000	광주 서구	이석호	10,000	인천 강화
천미공중회 10,000 X 15명 =150,000원			이대만	10,000	서울 도봉	이의재	10,000	서울 도봉			
이승수	10,000	경기 남양주	이선래	10,000	서울 동작	이용찬	10,000	전남 영광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중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회보를 받아 보실 주소 및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 보내주시거나

☎ 02)735-1720 으로 연락하십시오.

광주이씨대중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3年 7月 1日

<제389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 柱 榮

編輯人 : 李 容 頭

主 幹 : 李 柱 晁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